

목표·내용·방식·평가가 상호작용할 때 교육은 ‘혁신’

미래교양리포트⑤: 교양 나침반을 켜라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hu.ac.kr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대학도, 교육도, 교양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는 교양의 가치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출범 7년, 우리신문은 후마의 어제와 오늘, 나아가 미래가치를 짚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 내용, 교육방법, 평가방식으로 나눠 ‘당면한 현실 속에서 교양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살펴본 미래 교양교육의 지향점들을 정리했다. 학생들은 미래교양교육이 다양한 학문의 배움터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신문이 후마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교양교육의 본질로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학문 습득을 가장 많이 뽑았다. 전문가들 역시 ‘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폭넓게 공부하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 속에서 대학 미래교양교육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에는 융합적 사고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도 포함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융합적 사고가 전제될 때 비로소 비판적 사고가 함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때 갖춰지며 정해진 틀을 깨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실용을 쫓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는 융합과 비판을 실현하는 교양교육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교양교육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위해 집단, 사회, 나아가 지구에 대한 이해와 융합적 사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정일 전 후마 대학장은 “미래교양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가 깨를 이뤄 함께 함양 될 때 학생들은 종합적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며 이는 곧 문제해결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학생들에게 심화된 전공 교육만을 가르치는 일은 전문화된 바보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교양전문가들 역시 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문제해결력을 갖추는 것을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즉, 여기서의 문제해결력이란 심화된 전공 지식영역의 일이 아닌 것이다. 현대 사회는 ‘정답’이 아닌 ‘해법’을 낼 수 있는 사람을

